

# 의대생 복귀 완료?... “수업 참여시 ‘정원동결’ 약속 지킬 것”

교육부, 전원복귀 기준 ‘강의참여’ 증원여부 결정 1~2주 미뤄질 듯  
의대생 ‘등록 후 수업거부’ 기조 정부-의대생, 진통 이어질 수도



경희대 의대가 30일 2025학년도 1학기 등록을 마감했다. 당초 경희대 의대는 28일까지 등록을 마감하기로 했으나 기한을 연장했다. 사진은 3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뉴시스

지난해 2월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계획을 발표한 이후 집단 휴학에 들어갔던 의대생들이 복귀하며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해가는 모양새다. 다만 교육부는 등록금 납부를 하더라도 실제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복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있어 2026학년도 증원 여부를 보려면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31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 등 ‘빅5’ 의대와 경북대, 부산대와 충북대, 충남대 등 국립대 의대생들 대다수가 이번 학기 복학을 신청을 완료했다. 중앙대 의대생들도 학기 등록 마감일인 이날

일괄적으로 등록을 신청했다. 당초 지난 28일이 복학원 제출 기한이었지만, 주말 사이 논의를 마친 학생들이 이날 전원 등록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희대 의대생들도 전원 등록을 하는 등 다수 의대에서 학생들이 대거 등

록하는 등 복귀 기조를 보이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3월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여부는 당초 예상했던 시기보다 늦춰질 전망이

다. 교육부가 2026학년도 정원 동결 조건으로 전제한 ‘의대생 전원 복귀’는 학생들이 학기 등록 후 수업에도 정상적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에서 “전체적인 큰 흐름이 등록 쪽으로 바뀌었고, 상당수 의대생이 등록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대학은 등록금 납부일을 4월로 늦춘 곳도 있어, 실제 복귀율 자체도 마감과 동시에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전원 복귀’ 기준은 등록금 납부를 마치고 실제 강의에 참여하는 학생 규모를 의미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당초 31일 전국 40개 의대의 학생 등록 마감일이 이뤄지면 4월 초 증원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추측됐지만, 학생들의 등록금 납부, 향후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보다 1~2주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4월 30일까지 대학교육협의회에 각 대학이 모집인원을 제출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4월말 전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정해져야 한다.

하지만 적지 않은 의대생들이 ‘등록 후 수업거부’ 등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부와 의대생 간 진통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 대변인은 “전원 복귀에 대한 기준은 아직 명확하게 잡지 않지만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관계자가 수긍할 정도라면 정부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학생들이 집단으로 휴학을 신청해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총장은 휴학을 반려했을 수 있고, 미등록 또는 수업거부는 학생들에게도 부담되는 행동이 될 수밖에 없으니 학생들의 지혜로운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외고·자사고 자소서에 논문·출간·해외활동 언급 금지

서울시교육청 ‘고입전형 기본계획’ 입학전형 공정성·신뢰성 확보 일환

2026학년도 입시부터 서울 외국어고나 자사고 등의 자기소개서에 논문 실적이나 도서 출간 사항, 해외 활동 등의 기재가 불가능해진다.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로 지정된 서울반도체고등학교는 첫 신입생을 모집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이하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고입전형 기본계획’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에 소재한 모든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 절차·방법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계획이다. 2026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학교장 선발 후기고 중 외국어고·국제고, 자사고 등 자기주도학습전형 실시하는 학교는 학생이 자기소개서 작성 시 논문 실적, 도서 출간, 지식재산권 등재, 해외 활동 등은 적을 수 없다. 교육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고입 자기주도학습전형 및 입학전형영향평가 개선안’에 따라이다.

이같은 학생 실적은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꼽히며 학교생활기록부엔 기재가 불가했음에도, 지금까지 학교장 선발 후기고 중 외국어고·국제고, 자사고 등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입시에선 자기소개서에 기재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자기소개서 기재는 물론, 학교장 선발 후기고 자기주도학습전형 면접고사에서도 질문할 수 없다.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의 특이배정(지체장애인 등) 지원 대상 기준도 명확하게 개선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 및 제87조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이번 개선을 통해 지원 대상 기준이 모호해 발생했던 현장 혼란이 최소화되고 고입전형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26학년도부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로 지정된 ‘서울반도체고’가 첫 신입생을 모집한다. 학생들은 신산업 분야인 반도체 장비, 제조 분야의 핵심 인재로 성장하고, 미래 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경상북도 영천고등학교는 전국단위 군인자녀 모집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경북 영천고 지원자는 기존 경기 한민고와 마찬가지로 서울시를 포함한 다른 시도의 후기고등학교에도 이중 지

원이 가능하다. 다만, 한민고 또는 영천고에 합격할 경우 다른 후기고등학교 전형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한편,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선발 시기에 따라서 전기고등학교와 후기고등학교로 구분되며, 선발 방식에 따라 학교장 선발고와 교육감 선발고로 나뉜다. 전기고등학교는 학교장 선발고에 해당하며 ▲전문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목적고(과학·예술·체육계열) ▲산업계의 수요에 따라 예비 마이스터를 양성하는 특수목적고(산업수요맞춤형고) ▲특정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 등이 있다.

후기고등학교는 ▲일반고 ▲특수목적고(외국어·국제계열) ▲자율형 사립고 등이 있으며 일반고는 교육감이,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는 학교장이 각각 선발한다. /이현진 기자

## 경기도, 교외선 열차 하루 8회→20회 증편

경기도가 4월 1일부터 교외선 열차 운영을 현행 하루 8회에서 20회로 늘린다. 1월 운영을 재개한 교외선 열차는 그동안 무궁화호가 하루 8회 운행하며 안정화 단계를 거쳤다.

도는 2월부터 열차운행시간을 주말의 경우 낮 시간대 중심으로 변경한 결과 주말 이용객이 711명에서 1,002명으로 이용수요가 크게 높아졌다며 지난 3개월간 승객 이용 패턴을 분석해 평일과 주말 하루 20회 운행시간표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주중 대곡역 출발의 경우 첫차시간은 7시 2분 출발해 7시 56분 의정부역에 도착하며, 막차시간은 21시 19분 출발해 22시 13분에 의정부역에 도착한다. 의정부역출발의 경우 첫차시간은 6시 55분 출발해 7시 49분 대곡역에 도착하며, 막차시간은 21시 12분에 의정부역을 출발해 22시 6분에 대곡역에 도착한다.

주말(토·일) 및 공휴일 운행시간 관련해 첫차시간과 막차시간은 동일하나 낮시간대는 서로 다르게 운행되니, 변경된 시간표는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승차권 예매는 28일 금요일 14시부터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하루 동안 교외선 전 구간에서 자유석이나 입석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자유여행패스 ‘교외하루’ 판매도 시작한다.

한태우 경기도 철도운영과장은 “교외선 열차 운행횟수가 늘어 나고 왕복운임(5,200원)보다 저렴한 하루 무제한 승차권 ‘교외하루’ 도입으로 여행수요가 높아져 경기북부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18 | 해질 / 18:55

**4월 1일 (화)**  
음력 : 3월 4일

**수도권 날씨**  
5~16°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0/17, 동두천 1/17, 가평 -1/17, 파주 1/16, 서울 5/16, 양평 1/17, 인천 5/13, 수원 4/15, 용인 4/15, 평택 0/17, 백령도 6/11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서울시교육청, 4번째 농촌유학 ‘제주도’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의 농촌유학 4번째 지역으로 제주도가 확정됐다. 서울 관내 학교 학생들은 기존에 운영 중이던 전라남도, 전라북도, 강원도에 이어 제주도에서도 농촌유학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제주도교육청과 오는 4월 3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2학기인 9월부터 제주도 농촌유학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농촌유학은 도시 학생들이 일정 기

간 동안 농촌 지역에서 생활하며 자연 속에서 학습하고 공동체 문화를 경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농촌유학이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을 함양하고 자립심을 키우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평가하고 유학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제주도 농촌유학 확대를 통해 학생들에게 더욱 폭넓은 교육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제주 지역의 소규모 학교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현진 기자

### 메트로 한줄뉴스



▲미얀마 강진으로 최소 1700명 사망·3400명 부상 /사진 뉴시스  
▲“中대응 최우선” 美내부문건...주한미군 역할 조정론 본격화?

▲‘자녀 14명’ 머스크, 韓 출산을 지적하며 “인류 사멸해가”  
▲중국, 구조대 미얀마 강진 현장서 임산부 등 3명 구조

▲英 해리왕자, 자신이 설립한 자선단체 의장과 분쟁중  
▲트럼프 “젤렌스키, 광물협정 철회 시도...나토 가입 안 돼”